

<특집: 이집트 농업> 제4편

이집트의 농업정책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김수연(축산관측 담당자)***

1. 서론

일반적으로 농업정책은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도 농업정책의 기초가 크게 달라진다. 물론, 경제 상황이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환율이 불안정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경제적 상황에 의한 정책의 변화는 국내 생산과 관련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출입 관련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입 가격이 크게 올라 수입량이 줄 것이고, 반대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화폐로 환산한 가치가 더 커질 것이므로 수출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험 역시 이집트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이다.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정책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적 상황이 쿠데타 등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농업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보여 왔다.

이 글에서는 이집트의 농업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과거부터 어떠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어떠한 농업정책으로 변화해 왔으며, 각각의 농업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어 왔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 sykim0722@krei.re.kr

「해외곡물시장 동향」 2020년 4호에서는 이집트를 대상으로 기획시리즈를 실고자 한다. 즉, 이집트의 농업과 축산 그리고 농업정책을 4회로 나누어 게재한다. 먼저 제1편에서는 이집트의 농업 전반의 상황에 대해, 제2편에서는 이집트의 곡물 수급상황에 대해, 제3편에서는 이집트의 축산상황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편에서는 이집트의 농업정책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이 글에서는 기획시리즈의 제4편으로써 이집트의 농업정책의 변화와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2. 이집트의 정치·경제·사회 상황

2.1. 이집트 일반현황²⁾

이집트의 정식 명칭은 이집트아랍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이다. 이집트는 동북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이며, 동쪽으로는 홍해,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으며, 서쪽으로는 리비아, 남쪽으로는 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집트는 전 세계 물류이동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시나이 반도를 끼고 있으며, 세계 해상운송의 10%를 담당하는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다.

이집트의 국가 전체의 면적(country area)은 100만 1,450 km²로 한반도의 약 5배이지만, 주로 건조한 사막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지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집트에 산악 지형은 0.1%에 불과하며, 전체 면적의 5% 이하만이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로 알려져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하기도 한다. 인구는 이미 1억 명을 넘었으며, 인구의 85%가 수니파(Sunni) 이슬람교도이다. 나머지 10%는 콥트 기독교³⁾ 신자이다.

2) 이 부분은 박성진·김승애,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세계농업」 제19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12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 콥트교회(Coptic Church). 이집트 그리스도교의 일파. 칼케돈공의회(451)에서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디오스코로스가 이단으로 단죄된 데 반발하여 국민적 교회로서 독립하였다. 아랍인의 정복 하에서도 그 종교·풍습을 존속시켰고, 19세기에 이르러 다시 세력을 만회하였으나, 고위 성직자와 신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1928년 화해가 성립되어, 양측 대표로 이루어진 선거회에서 총주교를 선출하게 되었다. 한편 4세기 중엽에 콥트교회는 이집트에서 에티오피아로 전파되었으며, 여기에서도 콥트 국민교회를 형성하였고, 1935년 에티오피아를 정복한 이탈리아는 이것을 이집트로부터 완전 분리시

〈표 1〉 이집트 국가정보

국명	이집트아랍공화국(Egypt, Arab Republic of Egypt)
위치	동북아프리카 지중해 및 홍해 연안
면적	100만 1,450km ² (한반도의 약 5배)
기후	아열대성 사막 건조기후
수도	카이로(Cairo)
인구	국내 9,116만 5,852명(2016년 7월 기준), 국외 800만 명 가량. 인구성장률 2.2%(2014년)
주요 도시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이스마일리아, 포트 사이드 등
인종	아랍(95%), 베두인, 베르베르, 누비아, 베자, 돔 등 소수민족(5%)
언어	아랍어(현지 상용어는 아랍어이나 상거래 시 영어가 어느 정도 통용됨)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85%), 콥트 기독교(10%), 기타(5%)
건국일	1953년 6월 18일(공화국선포일)
정부 형태	입헌공화국
국가 원수	압델 파타 알 시시(2014년 6월 8일, 대통령 취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그림 1〉 이집트 지도



자료: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이집트에서는 1959년에 국가계획 최고회의가 설치되었으며, 제1차 5개년 계획과 긴급 3개년 계획들을 입안하여 공업화와 개발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중동전쟁⁴⁾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2년~1993년에는 규제완화, 토지개혁, 농산물 수출추진 등 제3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였다.⁵⁾

4) 1948년 이스라엘 성립 이후, 1948년~197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벌어진 전쟁을 말한다.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은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토는 전쟁 전보다 확장되었다. 제1차 중동전쟁은 팔레스타인전쟁 또는 독립전쟁이라고도 부르며, 1948년에 발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에서의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대립분쟁을 조율할 수 없게 된 영국은 문제 해결을 국제연합(UN)에 위임하였다. 이에 UN은 1947년, 팔레스타인을 아랍과 유대인의 2개 국가로 독립시키는 결의를 채택하게 된다. 이후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선포는 아랍 국가들의 즉각적인 반발로 이어졌고, 아랍 국가들의 대 이스라엘 전선포고가 일어나게 된다. 제1차 중동전쟁은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에서 참전하며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전쟁 초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제국의 협공이었기에, 전세가 아랍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아랍 진영 내에 불화가 일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 시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하면서 점차 이스라엘에 유리한 전세가 조성되었다. 1차 중동전쟁은 1948년 11월 6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 결의 채택으로 일시 중지되고 1949년 1월 이스라엘 대표와 이집트 대표의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이후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협정으로 1차 중동전쟁은 종결되었다. 제2차 중동전쟁은 수에즈전쟁 또는 시나이전쟁이라 부르며, 1956년에 발발하였다. 이집트의 나세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경영권을 소유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면서 벌어진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1956년 10월 29일 시나이 반도의 요충지를 점령하였고,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이집트 공군기지를 폭격하여 이집트 공군을 거의 전멸시킨 것은 물론 수에즈 운하까지 점령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중동에서의 세력 신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영-프의 군사행동을 비난하며 엄정 중립을 선언하였다. 또 소련도 영-프 양국의 군사 개입에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내며 동시에 이들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 등을 시사하였다. 결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는 하였지만, 미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1956년 11월 전쟁을 중지하였으며, 이후 UN총회에서 영-프-이스라엘 3개 점령군의 즉각 철수가 결의되었다. 그리고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국유화가 인정되었다. 3차 중동전쟁은 6일 전쟁이라고도 부르며, 1967년에 발발하였다. 3차 중동전쟁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빈번한 충돌이 계기가 되어 발발하였다. 당시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1967년 4월 제1차 중동전쟁의 정전협정에서 비무장지대로 설정된 골란고원 일대에 이스라엘이 농작물을 경작한다는 일방적인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리아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집트가 아카바만의 입구인 티란 해협을 봉쇄한 것을 계기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 구 예루살렘 지역, 요르단강 서안 지역, 골란고원, 시나이반도의 8,600km²를 새로 점령하였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지배에 들어간 영토 면적은 이스라엘 독립 초기의 8배가 넘는 102,400km²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난민이 급증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제4차 중동전쟁은 라마단 전쟁 또는 욘 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하며, 1973년에 발발하였다. 제4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와 시리아가 과거 3차례 중동전쟁에서 잃었던 영토 회복을 위해 1973년 10월 6일 수에즈 전선과 골란고원의 양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의 피해는 막심하였으나, 이스라엘은 개전 6일 만에 반격을 시작하면서 초기 열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의 용의주도한 작전에 따라 시나이반도의 이집트 주력부대가 포위되었고, 이후 UN에서의 미-소 결의로 휴전이 성립되었다. 이스라엘은 제4차 중동전쟁에서 점령한 골란고원을 1981년 합병하였으며, 이 문제로 2000년 시리아와의 평화협상이 중단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이집트는 ‘아랍의 봄⁶⁾’이라 불리는 반정부 시위를 기점으로 정치적으로 급변하였다. 당시 이집트 대통령은 무바라크⁷⁾였는데, 무바라크 대통령은 자신의 차남 가말 무바라크(Gamal Mubarak⁸⁾)에게 권력을 승계할 계획으로 2007년에 헌법을 개정하였다. 국민들은 무바라크 정부의 반민주적 조치에 반발하였고, 이는 시위, 파업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바라크는 무력으로 이를 제압하였다.

지속된 공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으로 2011년 1월 25일에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군부마저 무바라크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고, 결국 2011년 2월 11일에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서, 전권을 이집트 군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Armed Forces)에 이양하게 되었다.

30년 가까이 독재한 무바라크가 사퇴한 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2012년 6월 모하메드 무르시(Mohamed Morsi⁹⁾)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이집트 국민들

-
- 5) 네이버블로그 꼬꼬몽의 내용수집, ‘이집트의 주요 산업인 농업은’, 2012년 6월 6일자 게시 (<https://blog.naver.com/yogishax/30139867258>)
 - 6) 아랍의 봄(Arab Spring).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反)정부 시위의 통칭이다. 2010년 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촉발된 유례없는 반정부 시위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정부·민주화 시위는 집권세력의 부패, 빈부 격차, 청년 실업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분노 등이 원인이 돼 아랍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010년 말 시작된 튀니지의 반정부 시위는 2011년 1월 제스민혁명으로 번졌고, 이집트는 2월 코사리 혁명으로 각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또 리비아에서는 10월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Qaddafi)가 사망하면서 42년간 계속된 독재정치가 막을 내렸다. 예멘의 경우 2011년 11월 알리 압둘라 살레(Ali Abdullah Saleh) 대통령이 권력이양안에서 명함에 따라 33년간 계속돼 온 철권통치가 종식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 7) 무바라크(Honsi Mubarak). 이집트 공화국의 제4대 대통령. 소련 유학에서 돌아와 공군 사관학교 교장·공군 참모장 등 요직을 거쳐 1969년 공군 최고 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1975년에는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1981년 10월 6일 대 이스라엘 전 승전 8주년 기념식 단상에서 젊은 장교와 회교 과격파로 구성된 암살단의 총격을 받고 A. 사다트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에 실시된 국민 투표에서 98.5%라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30년간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 무바라크 시대를 개막하였다. 2020년 사망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인명사전, 인명사전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
 - 8) 가말 딘 무하메드 호스니 무바라크(Gamal Al Din Mohammed Hosni Sayed Mubarak). 1963년 12월 27일 ~)는 2011년 이집트 혁명으로 축출된 이집트의 전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와 부인 수잔 무바라크의 둘째 아들이다. 시민 혁명으로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되기 이전, 무바라크가 이끄는 국민민주당의 고위직을 맡아 무바라크의 후계자로 인식되었으며, 정권이 붕괴된 이후 형 알라와 함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 및 공공자금 횡령 및 권한 남용 혐의로 이집트 검찰에 구속되었다. 2011년 4월 16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무바라크의 두 아들 가말과 알라가 현재 카이로의 정치범 수용소인 토라 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보도하였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 9) 무함마드 무르시라고도 한다. 이집트 첫 민선 대통령으로, 2012년 선출되었으나, 취임 1년 만인 2013년 반정부 시위 사태에 이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수감되었다. 6년간 수감생활을 한 무르시는 2019년 6월 17일 카이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68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이후 이집트 검찰은 무르시의 시신에서 부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집트 국영TV는 그의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전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은 당연히 민주적인 정부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무르시는 이슬람주의적이고 권위적이었다.

2013년 6월에는 무르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봉기가 또다시 일어났다. 군부 또한 무르시가 사퇴할 것을 압박하였다. 이에 무르시 역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1년 만에 물러났다. 일부 무르시 퇴진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이들을 강제 진압하며 다시 한번 전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과도기 정부가 국가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과도기 정부는 군부 세력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군부는 민간인을 군사 재판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였다. 즉, 이 시기는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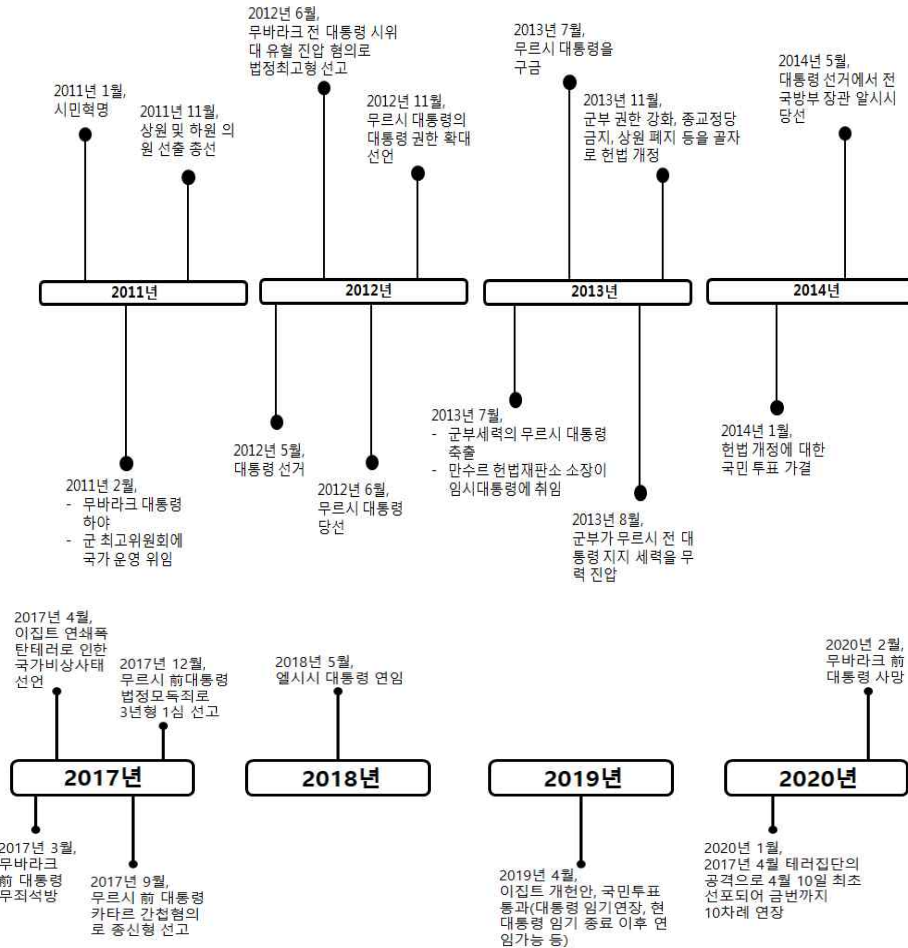
과도기를 거쳐, 2014년 6월에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압둘 파타흐 알시시(Abdel Fattah al-Sisi¹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알시시 역시 군부의 중심 세력으로 이집트 내에서 군부의 권력은 더욱 굳건해 지는 결과를 낳았다.

알시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인 2014년 전후하여 이집트에서는 부정부패와 높은 실업율, 엄청난 국가 부채 그에 더하여 테러 위협 등 국내·외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에 알시시는 대통령 취임 즉시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국가안보를 확립한다는 중점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이제와서 보면, 알시시 정권의 경제 및 안보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역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무력 진압하는 공포 정치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정치적 정세로 이집트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에서도 맹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0) 이집트의 현 대통령으로 군인 출신 독재자이다. 2014년 전역 당시 계급은 육군 원수. 알시시는 강력한 철권통치와 무자비한 탄압으로 국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철저히 통제하여 왔다. 하지만 이런 그의 강권통치도 경제난과 가혹한 독재에 겹쳐 물가와 설탕 가격이 2배나 급등하고 경제가 급격히 어려움에 빠지자 알시시의 지지율도 추락하였다. 결국 이집트는 외환위기에 빠져 IMF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른다. 이집트의 한 재야인사는 알시시가 철권통치 능력에 비해 경제 등 국가 운영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시시 정권이 오래가지는 못 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부정 선거 의혹이 있는 만큼 2018년 3월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97.08%라는 득표율을 보이며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재선에 성공한 뒤, 알시시는 4월 14일에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하였다. 2019년 4월 16일에 이집트 의회는 알시시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년이었던 대통령 재임기간이 6년으로 늘어났고, 재선되면 2030년까지 독재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현재 코로나19가 퍼져있는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그림 2〉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 정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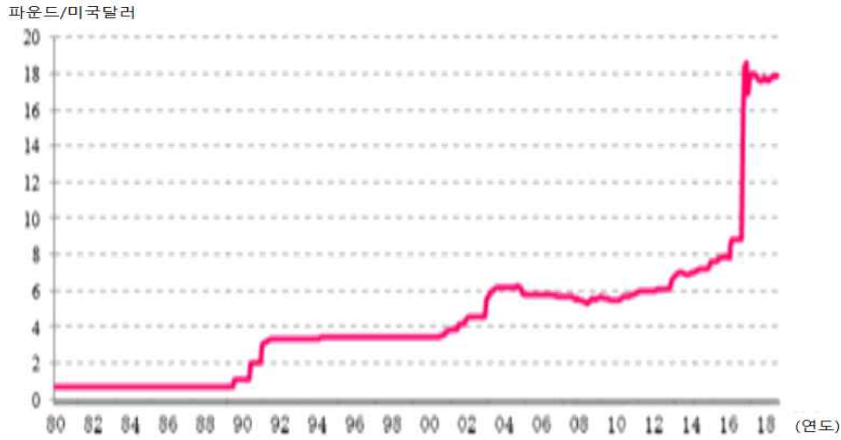


자료: 박성진, 김승애,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세계농업』 제19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12을 기본으로 필자 업데이트

이집트는 연령 구성이 젊고, 인구는 급속히 확대되며 도시화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정치와 치안측면에서 알시시 대통령 취임 후 진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집트 파운드화 화폐 평가절하가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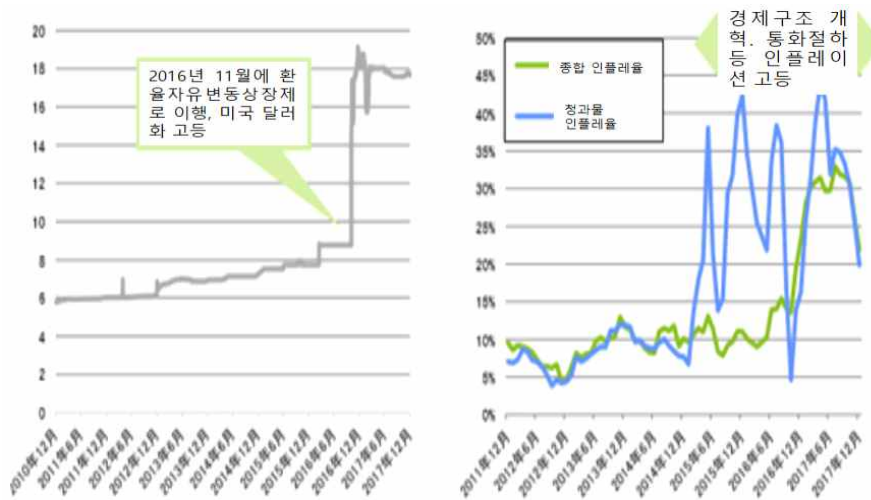
알시시 대통령 취임 후 경제구조 개혁에 착수하였는데, 이 개혁조치로 인해 곡물 및 식품 수입가격이 급등하고, 이집트 파운드화의 감가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이에 연동하여 전체 물가도 급등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과물의 인플레이션율은 40%를 넘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¹¹⁾.

〈그림 3〉 미국 달러화 환율 추이(EGP/USD)



자료: CEIC, 堀江 正人, エジプト経済の現状と今後の展望 ～経済の復調が注目される中東北アフリカの大国エジプト～, MUFG, 2019/01/08에서 재인용

〈그림 4〉 이집트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이집트중앙은행

자료: 이집트중앙은행

11)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會社, 平成29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アフリカ) 最終報告書, 2018年3月22日字 게재(https://www.maff.go.jp/j/kokusai/kokkyo/food_value_chain/attach/pdf/haifu_chousa29-8.pdf)

2011년 발생한 민주화 혁명 이후 이집트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이집트 국가 부채가 연간 GDP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으며, 평균 경제 성장률 또한 인구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인 2% 대에 머물렀다.

알시시 대통령 취임 이후 이집트 경제는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 경제 성장률이 4%대를 기록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알시시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재건 의지로 이집트의 경제성장을 끌어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걸프 국가들이 이집트의 군부 세력 재집권을 환영하면서 재정지원을 하였다. 이는 이집트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알시시 대통령 집권 이후 이집트 경제는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무역 적자나 재정수지 적자 그리고 높은 실업률 및 거시경제의 불안정성들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집트의 주요 경제지표는 <표 2> 및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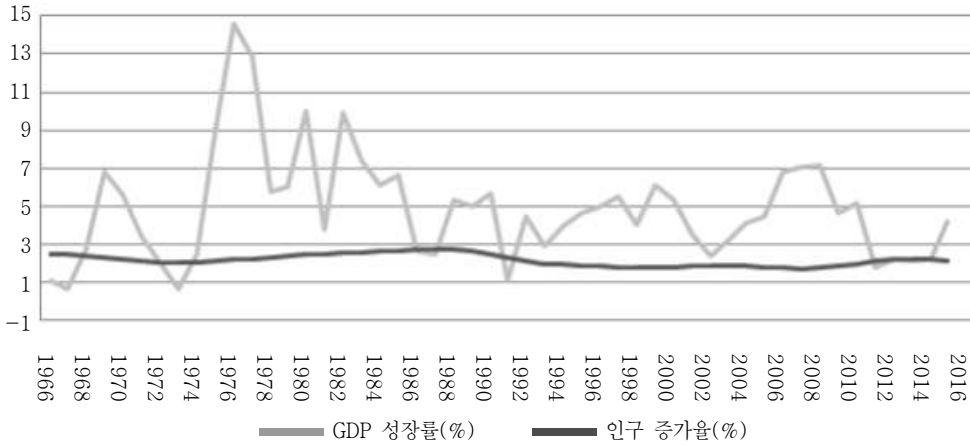
<표 2> 이집트의 주요 경제지표

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1.8	2.2	2.1	2.2	4.2	3.2
	1인당 GDP	US\$	11,210	10,859	11,068	11,303	11,692	12,055
	명목 GDP	십억 US\$	242.9	273.3	268.4	296.9	315.0	282.8
	정부부채/GDP	%	80.2	81.6	87.2	89.1	90.2	92.0
	소비자물가상승률	%	10.1	7.1	9.5	10.1	10.4	12.1
	민간소비증가율	%	5.5	5.9	2.6	4.1	2.8	2.1
	실업률	%	12.0	12.7	13.2	13.0	12.8	13.1
대외 경제	수출실적	백만 US\$	27,913	25,092	26,534	25,269	19,031	15,464
	수입실적	백만 US\$	-56,458	-59,827	-56,081	-64,451	-58,285	-51,574
	무역수지	백만 US\$	-28,544	-34,735	-29,484	-39,182	-39,254	-36,110
	민간투자증가율	%	-0.3	10.1	-1.5	9.9	20.2	-
	외국인투자금액 (당해분)	백만 US\$	2,189	3,982	3,753	4,178	6,380	-
	총외채	십억 US\$	35.1	39.9	44.4	39.6	44.5	51.1
	외환보유고	십억 US\$	17.6	14.9	16.1	14.1	15.5	17.0
	이자율	%	11.0	12.0	12.3	11.7	11.6	12.3
	환율	1\$:이집트파운드	5.94	6.06	6.87	7.08	7.71	9.71

주: 201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그림 5〉 GDP 성장률 및 인구 증가율 추이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집트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 교체와 테러 증가의 위협에 대한 우려 그리고 내전 등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0년 약 30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약 392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이집트는 2011년 아랍의 봄에 의한 정치정세 혼란으로 관광객이 격감하여 생산 활동도 정체되었다. 이 때문에, 2012~2014년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2~3% 전후에 머물렀다. 2014년에는 알시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016년에는 알시시 대통령 지지파가 다수를 점하는 의회가 발족하였다. 이후 불안하던 정치적 정세는 다소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IMF의 권고를 받아 2016년에는 환율상장에 대한 대폭적인 절하와 함께 보조금 삭감 등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으로 이집트 경제가 건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집트 경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집트에서는 EU와의 연합협정에 의한 관세철폐를 계기로 공업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왔다. 이집트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EU와 걸프만 국가들 등 인접국가가 중심이다. 이집트에 투자하는 국가들도 EU와 걸프만 제국 등 인접국들이다¹²⁾.

12) 堀江正人, エジプト 経済の現状と今後の展望 ~経済の復調が注目される中東北アフリカの大国エジプト~, MUFG, 2019/01/08

한편, 이집트는 기계장비나 식품, 화학제품 그리고 연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이집트로 이러한 제품들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중국, 독일, 미국, 터키 등이다. 이집트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며, 이집트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품목은 주로 석유제품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과 이집트 간 무역규모는 약 24억 달러 정도인데, 이집트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총 금액은 약 2억 달러 수준이며, 우리나라가 이집트로 수출하는 총 금액은 약 22억 달러 규모이다.

이집트의 최근 경제동향¹³⁾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4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 경제성장 트렌드 상 높은 성장률이 지속되지 못하고 저개발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집트는 2000년대 후반에는 경제 성장률이 7%대에 달하였지만, 튀니지아에서 발생한 반정부폭동을 단초로 2011년 1월에는 이집트에서도 ‘아랍의 봄’과 같은 대규모 반정부 데모가 발생하여 무바라크 대통령을 사임시켰다. 2012년에는 이슬람 원리주의 무슬림 동포단과 연결된 자유공정당이 의회선거에서 승리하여, 자유공정당 무르시 당수가 대통령 선거를 제압하고 정권을 잡았다.

그 후 무르시 대통령의 강권 통치에 반발한 반대통령과 무슬림동포단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지지파가 각각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데모를 전개하였다. 이에 정부에 의한 사태 수습이 곤란하다고 본 군부가 2013년에 개입하게 되었고, 무르시 대통령을 강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4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알시시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6년 1월에는 전년도에 실시된 의회선거 결과에서 알시시 대통령 지지파가 다수를 점하는 이집트 의회가 발족하였고, 이로써 2년 이상에 걸친 의회 부재 상태가 해소되었다. 알시시 대통령은 2019년 재차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권을 이어가고 있다.

둘째, 최근의 이집트 경제는 2016년 구조개혁으로 경제 복구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이집트 경제구조는 소위 수입경제였다. 즉, 수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통화 이집트 파운드의 환율 상장을 높게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쟁력 결여와 국제수지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2016년 실시된 IMF 주도의 구조개혁에 의해 이집트는 환율상장을 대폭 절하하고, 과잉 수입을 억제하며, 외자유입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높여

13) 堀江 正人, エジプト経済の現状と今後の展望 ~経済の復調が注目される中東北アフリカの大国エジプト~, MUFG, 2019/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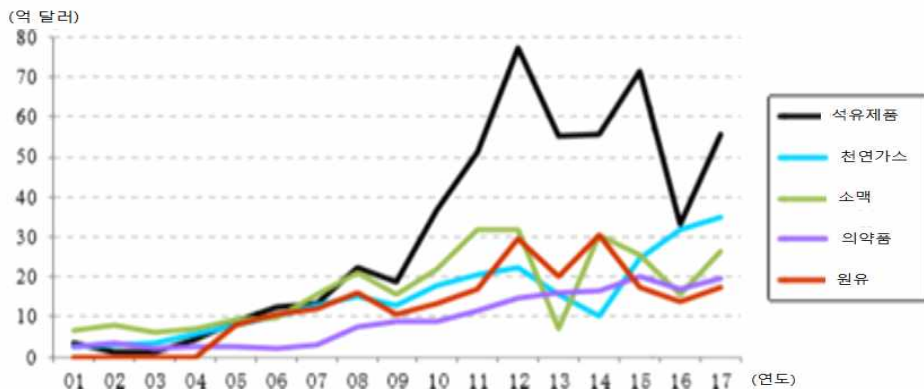
수출산업을 포함한 외자계 기업 유치를 위한 법 정비에도 착수하였다.

이집트 파운드 환율이 급락하자 수입품 가격이 급상승하였고, 개인소비는 크게 타격을 받았다. 이집트에서 다액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주요한 원인은 식량, 에너지, 공공요금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들이 너무 많은 지출로 재정이 팽창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 재건을 위해 세율을 당초 13%였던 것을 2017년 7월에는 14%로 인상하였다. 단, 식품과 공공요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집트 경제성장률을 올리게 된 요인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집트의 인구증가율은 2019년 현재 2%대로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셋째, 수출과 국제수지측면에서 경상적자는 축소되고, 외화준비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이집트·EU 연합 협정이 발효되고, EU로의 공업제품 관세 철폐를 계기로 2000년대 후반부터 공업제품 수출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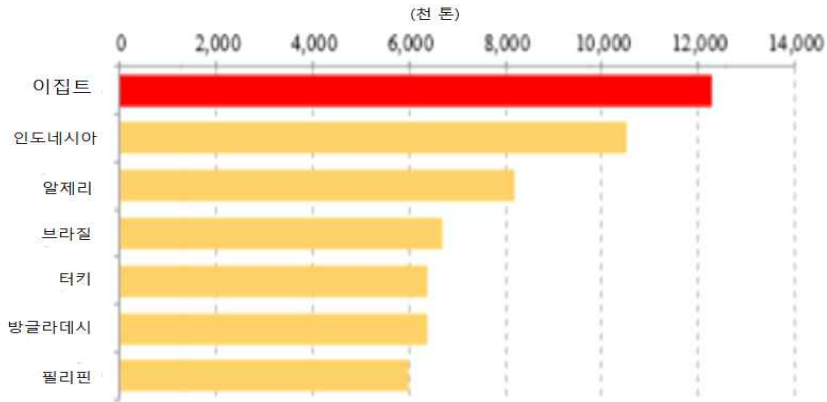
〈그림 6〉 이집트 수입 상위품목(HS코드 4단 베이스)



자료: ITC, 堀江 正人, エジプト経済の現状と今後の展望 ~経済の復調が注目される中東北アフリカの大国エジプト~, MUFG, 2019/01/08에서 재인용

수입측면에서는 최대 수입품목인 석유제품, 2위 품목인 천연가스 외에, 3위 수입품목인 소맥은 60%가 러시아에서 20%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집트는 현재에는 세계 최대 소맥 수입국이다. 이는 급속한 인구증가로 소맥수요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소맥의 생산·유통이 규제되어 있어 소맥생산이 떨어지게 되어버린 점을 주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세계 주요 소맥 수입국과 수입량(2017/18년)



자료: USDA,堀江 正人, エジプト経済の現状と今後の展望 ～経済の復調が注目される中東北アフリカの大国エジプト～, MUFG, 2019/01/08에서 재인용

이집트에 투자하려는 기업 또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는 인구 규모·증가율 측면에서 매력이 있으나, 노동력 질이 과제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노동력의 질이 낮다는 점은 이집트에 진출하려는 기업 또는 국가의 입장에서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 경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매크로 경제는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육성의 성패여부가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매크로 경제측면에서 살펴보면, 2020년대 초에는 경제성장률이 6%대에 달할 전망이지만, 향후 경제성장의 열쇠는 산업육성이 될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3. 이집트 농업 관련 정책의 변천

3.1. 농업개발정책의 변천¹⁴⁾

이 절에서는 1952년 이후 이집트 농업개발정책을 리뷰해 보고, 현재까지 농업 부문의 제도 측면에서의 변천을 살펴본다. 먼저 1970년대 중반 경까지의 사회주의

14) 이 부분은 土屋一樹, エジプトの農業開発政策と農業生産の推移,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아시아 경제연구소, 「現代の中東」 34권, 2003.1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적 정책과 그 후의 문호개방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소맥, 옥수수, 쌀, 사탕수수, 면화 등 5대 작물에 대해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생산동향을 개관해보는 순서로 설명한다.

이집트 농업개발정책의 변천과정은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1952년 농업개혁이 시작된 농업시스템 재구축 시기이며, 2기는 1960년대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국가에 의한 농업생산 컨트롤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어 3기는 1974년 이후 정부에 의한 농업생산관리 완화시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기는 1986년 이후 농업자유화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집트 농업개발계획(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은 1980년대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집트 농업개발계획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매 10년 단위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이집트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천된 것이다. 즉, 이집트의 농업개발 계획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각각 수정되어, 총 4번 수정 계획을 발표한 셈이다. 현재에는 이집트 정부의 지속가능농업개발 계획 2030(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towards 2030, 이하 SADS 2030)을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1980년대의 농업개발목표는 농업부문 민간화, 연간 평균 농업생산성 3.4% 제고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토지와 농업용수 등과 같은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즉, 기준이 농지 이외에도 염도가 높은 토지나 알칼리성 토지도 경작지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개간된 농경지에는 관개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농가가 농산물의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집트 정부가 농업 총 수출액을 50억 이집트 파운드(약 2억 7,500만 달러=3,025억 원¹⁵⁾)로 늘리고, 연간 농업 성장률을 3%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면화는 줄곧 정부가 관리하여 왔지만, 면화의 생산과 판매, 수출 등을 모두 민간에게 관리를 맡겼으며,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연구에도 중점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 외에도 본격적으로 개간된 경작지의 토지를 분배하는 기준을 세우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게 되었다.

15) 이해를 돕기 위해 원/달러환율은 1,100원/달러를 이용하였다.

2000년에는 2017년을 달성 목표로 한 농업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곡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연간 농업성장률을 4.1%로 설정하고, 매년 15만 페단(6만 3,000 ha)의 경작지를 개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농업개발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관개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화에 따라 잠식되는 농경지 축소 문제를 해결하며, 전략작물은 자급한다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 같은 개발계획을 통해 이집트 농업은 약 40년에 걸쳐 다양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1980년대까지 587만 페단(약 246만 5,400 ha)였던 농지면적을 2016년에는 895만 페단(약 376만 1,000 ha)으로 증가하였으며, 작물 재배면적(cropped area)도 동기간에 111만 페단(약 47만 ha)에서 152만 페단(약 64만 ha)로 확대되었다. 면적당(per land unit) 농업 생산성과 가축의 정육률(fresh meat percent) 또한 개선되었다. 농업개발계획으로 농업부문은 40년간 매년 평균 3~4% 성장하였으며, 이로써 인구 증가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부족분을 충당하여 나갔다¹⁶⁾.

이하에서는 시기별로 농업개발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1) 1952년 이전

근대화 이전인 17~18세기에는 토지 사유화가 인정되지 않았다. 개인은 오직 토지사용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18세기 말부터 토지소유의 개념이 나타났다. 19세기 초에 무함마드 알리에 의해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사유 농지 등이 모두 몰수되고 공적인 토지소유권이 명확해졌다. 1820년에 가셔야 비로소 농지의 실질적인 소유가 인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었다.

그 후 농지의 개인소유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고(1854~63년), 19세기 말에는 농지소유의 양극화가 추진되었다. 그 이후 1952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추세가 정착되면서 소토지 소유자 1인당 소유면적이 세분되어갔고, 5페단(2.1 ha) 이상의 중대 토지소유자 1인당 농지면적은 비교적 안정되어 갔다.

2) 농업개혁법에 의한 농업재구축기(1950년대)

16) 박성진, 김승애,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세계농업』 제19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12.

최초의 농업개혁은 1952년 9월이었다. 농지개혁과 동시에 소작제도 개혁과 농업협동조합 활성화가 시도되었다.

(1) 농지개혁

1952년 농지개혁법에서는 1인당 농지상한이 200페단(84 ha)으로 제한되고, 1인 50페단(21 ha)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녀에게는 300페단(126 ha)이 농지 소유상한으로 정해졌다. 1961년 2차 농지개혁에서는 1인당 농지소유상한이 100페단(42 ha)으로 축소되었다. 1969년 3차 농지개혁에서는 1인당 농지소유상한이 50페단(21 ha), 1가족 당 100페단(42 ha)까지로 축소되었다.

(2) 소작제도 개혁

농지개혁법에 의해 소작규정이 명확히 되었다. 현금 정액 소작의 경우 소작료를 토지세의 7배까지로 규정하였다. 분익 소작제의 경우에는 지주 수취분은 수확고의 반까지로 규정하고, 비용도 균등하게 분담토록 하였다. 소작 계약기간은 최저 3년이 보장되었다. 계약은 지주와 소작인이 직접 체결하며, 내용은 모두 문서화하였다.

3)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농업생산 관리기(1960년대)

1950년대는 농업개혁법에 의해 재분배된 토지를 입수한 자만이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1961년에는 전농가가 가입의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의 기능은 생산조직화, 유통관리, 금융증개 등 3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생산조직화는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유통관리 측면에서 1962년에는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면화와 양파의 강제매상이 도입되었고, 그 후 쌀과 대두에도 적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농업금융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4) 문호 개방기

1974년에 시작된 문호개방정책에 의해 경제부문에 민간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도입이 시도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로 1인당 50페단(21 ha)을

상한으로 하던 농지소유제한이 폐지되었다. 투입재에 대한 보조도 확대되었다.

5) 자유화기(1986년부터)

일반 경제분야에는 자유화 정책이 1991년부터 도입되었다. 농업분야에는 이보다 5년 정도 앞선 1986년부터 자유화정책이 개시되었다.

(1) 매상제도 자유화

대두 등 8개 작물에 대하여 1987년에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작부면적 제한, 정부할당, 조달가격을 폐지하였다. 1990년대 중반 경까지 주요 5대 작물(소맥, 옥수수, 면화, 쌀, 사탕수수) 자유화도 실시되었다. 소맥과 옥수수는 자유화 이전부터 정부매상의 영향이 적었다.

이 두 작물의 작부면적 제한과 강제 매상은 1987년에 철폐되고, 공출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쌀은 1986년까지는 시장가격의 약 60% 정도 매상되고 있었는데, 1991년에는 강제매상과 유통관리가 폐지되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면화와 사탕수수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 작물로, 작부는 정부가 관리하고, 전량 정부에 의해 매상되고 있다. 유통에서도 민간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지 않았다.

1990년대가 되면, 이들 작물에 대한 규제가 약간 완화되는 조치가 실시된다. 1992년 매상가격 인상, 1993년 작부면적 제한 완화, 1997년 수출 포함 유통부문 개방을 실시하였다. 사탕수수에 대한 자유화는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 1993년에 설탕수입과 국내 유통이 개방되는 등 유통부문에서의 개혁이 진전된다.

(2) 투입재 개혁

이 시기에는 화학비료 보조 삭감, PBDAC의 역할 재검토, 유통의 민간부문 개방이 실시되었다.

(3) 소작제도 개혁

1992년에는 법률 96호(Law 96)에 의해 토지제도와 소작제도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 변경의 목적은 토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관련하여, 1952년 이후 농지개혁법(Act 178)을 대폭 개정한 바 있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 먼저 소작료 상한선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1997년 이후에는 자유화되었다. 소작계약기간도 12개월마다 갱신하도록 하였다. 토지소유자에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도 주었다.

3.2. 농업보조정책의 변천¹⁷⁾

이집트에서는 1991년부터 IMF와 세계은행 주도로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정책(ERSAP)이 실시되어, 전체 경제에 시장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ERSAP 도입에 앞서 1987년부터 개혁이 시작되었다. 농업부문의 생산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정부 관리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생산·유통 제도에서 민간 활력을 주체로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개혁이었다.

가장 저렴한 아이시바라디¹⁸⁾와 중품질의 샤미¹⁹⁾는 주로 빵용이며, 고품질인 피노는 빵 이외에도 파스타와 과자 등의 원료이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맥의 자급률은 1960년 약 70%에서 1980년대 초에는 30% 이하로 떨어졌다. 그 후 농업개혁에 따라 국내 생산이 증가하여 소맥 자급률이 약 50%까지 상승하였다.

1) 도입 확대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식량보조제도의 원형은 1941년 실시된 물자 할당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집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물자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설탕, 등유, 가솔린, 차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할당제를 실시하였다(Ali and Adams, 1996, Ahmed et al. 2001²⁰⁾).

17) 이 부분은 土屋一樹, 「変革期を迎えたエジプトの小麦流通-小麦流通構造と食料補助制度の変遷-, 『現代の中東』 №36, アジア経済研究所, 2004년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8) Aysh Baladi(아이시바라디). 통밀로 만든 이집트 빵의 일종(Pita_Flat 형태).(출처: 네이버 블로그 쟈키즈, <https://blog.naver.com/genkids/220300787195>)

19) 이집트에서 정부 주도로 소맥을 공급하는 시기에 대부분 공급성 산하 국영기업으로 구성된 체분소에서는 3가지 종류의 소맥분(밀가루)이 만들어졌다. 3가지란 82% 소맥분인 아이시바라디, 76% 소맥분인 샤미, 72% 소맥분인 피노이다. 관련 내용은 허 덕 외, '이집트의 곡물 수급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20) Adams, Dale W. and Ali Kamel(1996), "Financial Reforms and Rural Credit : The PBDAC's Evolving Role," Lehman B. Fletcher ed., Egypt's Agriculture in a Reform Era, Iowa : Iowa State University Press 및 Ahmed, Akhter U., Howarth E. Bouis, Tamar Gutner and Hans Lofgren(2001), "The Egyptian Food Subsidy System : Structure, Performance, and Options for Reform," Research

그 후에도 소맥을 포함한 식량보조제도는 소비자 후생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에너지, 교육 등의 보조제도와 함께 확충하여 나갔다. 1960년대 중반 일부 물자 할당을 위한 배급카드 제도도 도입되었다.

식량보조금 지출은 1970년대에도 확대되었다. 사다트²¹⁾ 정권 하(1970~81년)의 식량 보조제도 대상품목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까지 쌀, 옥수수, 콩류, 냉동어 등 18개 품목이 되었다.

1960년대부터 소맥의 자급률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1인당 소맥 소비량은 1960년 약 80kg에서 1980년 약 177kg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요인으로는 보조금 때문에 소맥분(밀가루)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다는 점, 할당량이 없고 무제한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집트 정부는 IMF와 스텐바이 협정²²⁾을 체결하기 위한 채무 감축 및 경제 개혁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을 벌이게 되었다. 이집트 정부와 IMF는 정부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출을 삭감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이집트 정부는 경제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다음해 1977년 1월 17일에 보조금 대상 품목의 일부였던 피노, 쌀, 차, 가솔린 등의 가격 인상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여 민중에 의한 폭동이 헝가리와 알렉산드리아에서 발발하였고, 그 후 1월 19일까지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 정부 청사나 경찰서등이 습격당하였다. 질서 회복을 위해 1952년 이후 처음으로 군이 동원되었지만, 폭동이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가격 인상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Report 119, Washington, D. C.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21) 안와르 사다트(Muhammad Anwar Sadat). 이집트의 군인·정치가. 자유장교단을 결성하고, 1952년 이집트혁명 때 참가하였다. 제3대 대통령이 되었고 현실주의적인 온건노선을 취하여, 1977년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중동평화의 길을 열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 22) 일반적으로 IMF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기 위하여 체결되는 협정. 이 협정을 신용한도(credit line)의 설정이라 볼 수 있으며 이 한도내에서 신용 공여가 가능하다. IMF 가맹국이 국제수지적자로 단기적인 인보전재원이 필요한 경우 쿼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 조건 하에 추가적인 협의절차 없이 인출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서, 1953년에 도입되었다. 동 협약체결가맹국은 협약내용의 일부로서 합의된 정책준수사항 등 제반신용인출조건(conditionality)을 충족하였을 경우, 협약 한도 내에서 일정기간마다 일정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IMF로서는 동 협약을 통하여 가맹국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정책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함으로써, 당해 가맹국이 IMF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신용인출조건이란 신용공여 시 경상수지 적자를 균형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IMF가 당해 가맹국에게 부여한 정책 준수사항을 의미한다. 스텐바이협약(또는 확대협약) 체결 시에 포함되는 정책 준수사항으로는 주로 중앙은행의 대정부 여신한도, 금융기관의 국내여신한도, 통화증가율, 금융정책 방향, 순 해외자산, 대외 차입한도, 국제수지 및 외환관리 상의 목표, 외환지급의 자유화 조치 등이 있으며, 경제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계획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금인출이 어렵게 된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의견, <https://blog.naver.com/choiuisun/67226997>)

2) 감축기

식량보조제도는 1980년대 초까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 때문에 무바라크 정권 하(1981년~)에 다시 보조금 삭감이 의도되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보조금 삭감 정책(식량 가격 인상)은 또다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인 감축책이 채택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배급체계 통제 강화, 현금 지급에 따른 보상, 은밀한 개혁으로 크게 나누어진다(Sadowski 1991²³). 배급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1981년에 배급카드를 완전보조 대상인 청색 카드와 일부 보조인 적색 카드 2종류로 나누어, 소득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현금지급보상이란 계획단계에서 모든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직접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여 가격상승분을 보충하자는 것이었다. 1987년 일부 보조대상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 공공부문에서 20%의 임금인상이 실시되는 데 그쳤다.

보조금 삭감을 위한 점진적인 개혁이란 국민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조용히 보조금 삭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아이시바라디 가격 개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배급 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소득층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현금 보상은 중산층용 완충재로서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은밀한²⁴' 개혁은 특히 빈곤층의 충격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3) 경제개혁기 이후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정책(ERSAP)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한층 더 나아간 식량 보조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가격 인상이나 배급 대상 제한에 더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보조 대상 식량 추출이 실시되었다. 1990년대에는 가격인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보조대상 품목도 줄어들어, 남은 식량보조금 대상은 아이시 바라디(소맥분과 빵), 설탕, 식용유에 국한되었다.

23) Sadowski, Yahya M(1991) Political Vegetables?: Businessman and Bureaucrat in the Development of Egyptian Agriculture,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24) '은밀한'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저소득층의 반발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금 삭감을 거느끼지 못하도록 아주 점진적으로 또는 조금씩 배급 양을 줄이는 조치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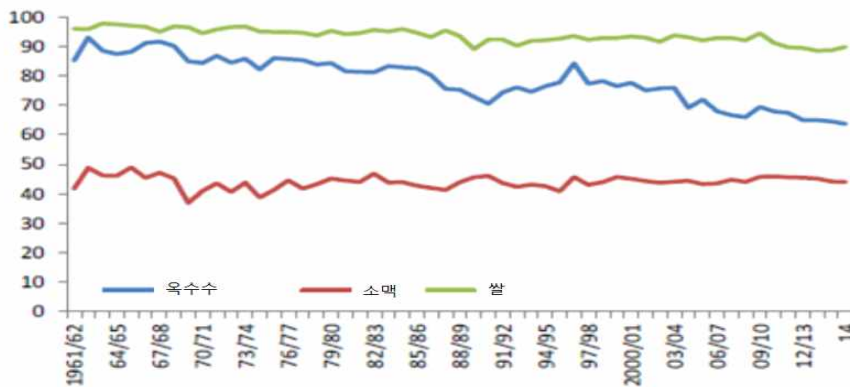
식량보조제도는 현재까지 재정적인 측면의 부담은 경감되어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조제도를 필요로 하는 층(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타겟팅과 유통과정에서의 누출방지라는 두 가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책으로서 특히 누출 비율이 큰 아이시바라디 소맥분은 피노의 정제를 막기 위하여, 도시에서는 옥수수 가루를 섞는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이집트의 곡물 수급 관련 정책²⁵⁾

2014년 이전의 북아프리카(NA²⁶⁾)의 주요 곡물의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이집트의 비율을 보면, 옥수수는 저하 경향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65% 수준이고, 소맥은 4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쌀은 90% 수준으로 매우 비싸다<그림 8>.

<그림 8> 이집트의 주요 곡물 소비량의 대 북아프리카 점유율



주: 2014/15년은 추정치
자료: USDA PSD 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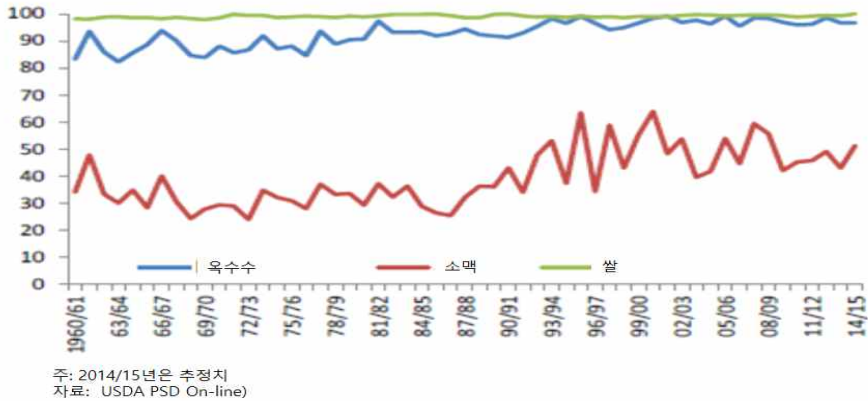
한편, <그림 9>에서 NA의 주요 곡물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이집트의 비율을 보면, 쌀과 옥수수는 대부분이 이집트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맥은 최

25) 이 부분은 草野拓司, '第5章 カントリーレポート: アフリカ', (일본)농림수산성, 2015 와 草野 拓司, 'アフリカ: 主要地域の主食と政策', (일본)농림수산성, 2016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https://www.m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140331_25cr03_05_africa.pdf), (https://www.m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160331_27cr9_15_africa.pdf)

26)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수단, 튀니지, 서사하라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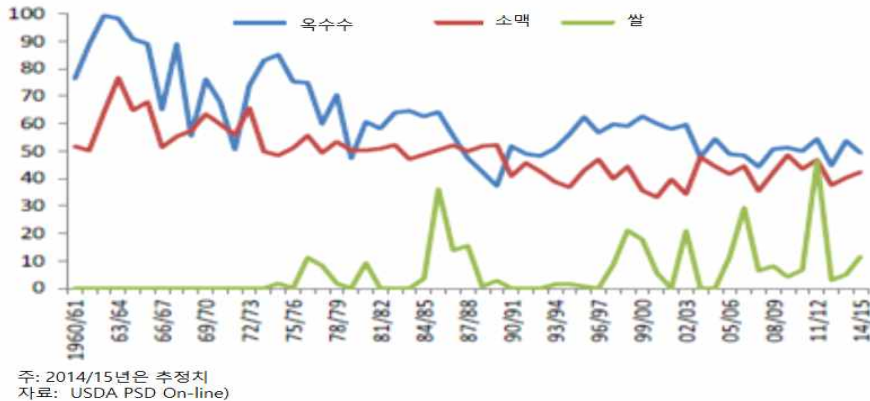
근에는 40~60% 정도이지만, 역시 NA 중에서도 최대 생산국이다.

<그림 9> 주요곡물의 이집트 생산량이 북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림 10>을 통해 NA의 주요 곡물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이집트의 비율을 보면, 쌀의 수입은 적지만 옥수수과 밀은 1990년대 이후 40% 정도로 추이하고 있다. 이집트의 수입량은 NA 최대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국제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국가이기도 하다.

<그림 10> 이집트의 주요 곡물 수입에 있어서 북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집트에서는 소맥이 가장 중요한 주식곡물이다. 소맥의 1인당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율 2% 내외로 인구 증가

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소비량의 증대가 전망된다.

다음으로 이집트의 소맥 수입량은 세계적으로 크기 때문에, 관심을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볼 필요가 있다.

이집트에서는 인구증가와 함께 1인당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여 왔다. 생산량의 증산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차이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순수입량도 증가하여 자급률이 5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소맥의 증산을 위한 방법으로는 단수(單收)와 수확 면적 모두 증가하는 방향이 중요시되고 있다. 다만 국토의 95% 이상이 사막에서 농지 면적이 4% 이하인 이집트로서는 단수 증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²⁷⁾. 이집트에서는 토지 개량, 물 이용 방법의 개선, 고수량을 초래하는 새로운 품종 도입 등으로 인해 단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ICARDA(International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Dry Areas)와 ARC(Agriculture Research Center)의 필드 크롭 리서치(freas)에 의하면, 이집트가 포스트 하베스트의 방법 및 수송과 보관의 개선을 통해 손실(로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가뭄 내성이 있는 지금까지보다 수확량이 많은 고수량 품종을 이용함으로써 평균 단수 6.4~6.5톤에서 9~10톤으로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MALR(Ministry of Agriculture and Land Reclamation)이 2013/14년에 National Wheat Campaign을 실시한 것도 단수 증가에 의한 생산량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질소비료와 같은 투입재 비용에 대한 정부보조도 2009/10년 톤당 150달러(165,000원)에서 2013/14년에는 230달러(253,000원)로 인상한 바 있다.

이집트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이상과 같은 단수 증대에 주력하는 한편, 한정된 경지를 조금이라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FAO(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는 이집트의 밀 재배는 175만 헥타르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수매가격을 높여 농민생산 인센티브를 올리고 증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2008년부터 GASC(General Authority for Supply Commodities)는 2012/13 시장연도(MY²⁸⁾)에 가격이 150kg당 380 이집트 파운드(75,240원)가 되도록

27) 이집트의 곡물 수급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본 지 허 덕 외, '이집트 곡물 수급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150kg당 20 이집트 파운드(3.6 US 달러=3,960원)의 프리미엄을 더하여 국제가격 이상으로 매입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2013/14 시장연도의 매입가를 150 kg 당 420 이집트 파운드(83,160원)라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높은 매입가는 농민들에게 소맥 면적을 추가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용자체제 강화에 의한 증산 정책도 있다. 이집트 정부는 2013/14 시장연도에 소맥 생산량을 900만 톤으로 추산하고, MY 2014/15 소맥 생산량을 950만 톤으로 계획하였다. MARL과 GASC는 PBDAC(Principal Bank for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Credit)에 의한 소맥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에 근거하여, 2013/14 시장연도에 농민으로부터의 매상량을 400만 톤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 전략은 소맥 공급철 전에 농민들이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PBDAC가 농협에 대출해 주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농협은 소맥을 판매한 뒤 어드밴스(가불) 차입금을 갚는다.

이상과 같이, 이집트에서는 증가하는 소비량을 보완하기 위해 소맥 증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지면적이 크게 제약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고수준의 단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증산에 의해 자급을 달성하는 방법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증가하는 인구와 1인당 소비량의 확대에 의해 앞으로도 소비량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때문에 이집트는 충분한 양의 밀을 얼마나 잘 조달할지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MoSIT(Ministry of Supply and Internal Trade's)는 전국적인 스마트 카드 파일럿 스킴(Smart Card Pilot Scheme) 실시를 통하여 다음 연도에 수입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이시바라디 공급 시스템의 복잡성 등으로 소맥 수입이 이처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집트는 2016년 소맥 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금제도도 변경한 바 있다²⁹⁾. 2016년 변경되어 시작하게 된 이집트의 소맥 보조금 제도는 평균 국제가격으로 소맥 농가로부터 소맥을 수매하는 제도이다. 이전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농가의 소맥 경작 진작 목적으로 국제가격 보다 높은 지역 조달 가격에 수매하여 왔었다. 그러나

28) 이집트의 시장연도(MY)는 7월부터 이듬해 6월이다.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집트 밀 농가 보조금 제도 변경, 「세계농업」 해외농업동향, 2015년 11월 11일자 게재, (http://www.krei.re.kr:18181/new/board/briefing/view/wr_id/2619/page/66)

이렇게 높게 책정된 가격으로 인해 이집트산을 가장한 러시아 산을 비롯한 외국산 소맥이 밀반입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새로운 제도로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소맥 농가에게 1페단(feddan, 0.42 ha) 당 1,300 이집트 파운드(161.89달러=178,079원) 가격으로 보조하며, 농가당 25페단(10.5 ha)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하였다.

2015년 이집트 정부는 알데브³⁰⁾(약 150kg)당 420 이집트 파운드(83,160원)의 고정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가격은 톤당 약 168달러~200달러(184,800~220,000원)인 국제가격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집트 정부는 2015년 530만 톤의 기록적인 양을 지역 농가로부터 수매하였다. 이는 2013/14년 370만 톤에 비해 상당한 양의 소맥을 수매한 것이다. 또한 설탕 농가에도 톤당 400 이집트 파운드(79,200원)를 적용하는 보조금 제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집트에서는 연간 2% 내외로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자원이 한정되어 경작적지가 극히 적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수입 소맥에 대한 의존은 강하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집트 정부가 소맥 유통과정 등에 더욱 진전된 형태로 민영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소맥 수입이 효율화되고 수입량 감소가 달성될 가능성은 있다.

또, 알제리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소맥 바이어와 GASC를 비교하면, GASC의 입찰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스마트화하는 것도 효과적일지 모른다.

4.1. 이집트의 지속가능농업개발계획 2030(SADS 2030)³¹⁾

2015년 들어 이집트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농업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성과를 토대로 SADS 2030을 수립하였다. SADS 2030의 비전은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제 전반의 발전을 꾀하고, 농촌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SADS 2030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으로 '비교우위를 지닌 농산물

30) 이집트의 건량(乾量) 단위

31) 이 부분은 박성진·김승애,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세계농업」 제19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12에서 요약, 보완 및 정리하여 작성되었다.

집중 육성, 지형 및 환경 이점 활용, 농업 현대화를 통한 식량안보 확보 및 농가소득 증진 달성'을 내세웠다.

SADS 2030의 전략 목표는 ① 농업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② 농업 생산성 제고, ③ 농산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④ 주요 작물의 식량 안보 수준 제고 등이다. 목표별 세부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자원의 확대

이집트는 물 부족 국가이다. 유일한 수원인 나일 강 물 사용량도 '물 분배 협약'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농업용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여 수송 과정에서 약 30%, 관개 과정에서 약 50%의 물이 유실된다.

이집트는 관개 수로(irrigation canals)와 농장 내 관개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용수 손실률을 25%로 줄이고, 2030년까지는 20%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많은 농업용수가 필요한 쌀 재배 면적(harvested area)을 2013년 70만 ha에서 약 55만 ha로 축소하여 2030년까지 124억 m³의 물을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수자원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빗물 관리기술도 도입하여 빗물의 증발을 막고 강수 사용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농경지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SADS 2030의 전략 과제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집트는 2017년까지 125만 페단(약 52만 5,000 ha), 2030년까지 310만 페단(약 130만 2,000 ha)의 농경지를 추가로 개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기존 농경지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집트의 농지가 집중되어있는 나일 강과 델타 지역이 도시화에 잠식되고 있다. 매년 평균 2만 페단(8,400 ha)의 나일 강과 델타 지역 농지가 도로, 고층 건물 등의 건설로 사라져 간다.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주변 농경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근방 농경지의 토양 비옥도마저 저하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농경지 토양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비료 사용량, 새로운 배수 시스템 개설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 생산성 제고

이집트는 농업 전반의 생산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은 첫째, 고온과 염분에 내성이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다. 품종 개발은 정부 주도

아래 농업연구개발센터(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가 유전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이끈다는 내용이다.

이집트를 포함한 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은 고온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가뭄에 강한 품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 해안가를 따라 간척지를 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염분에 내성이 강한 품종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둘째, 물 사용량이 적은 원예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것이다. 올리브, 대추야자, 무화과, 석류, 포도 등 원예작물 재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물이 사용된다. 이집트는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원예작물 수확량을 집중적으로 확대하여 대표 수출작물로 성장시킨다는 내용이다.

셋째, 농장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소규모 농가에 파견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최신 농업기술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농가에 파견되어 정부가 권장하는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집트 정부가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은 국민의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데에 있다. 특히 중소규모의 축산농가 성장에 집중하여, 국민의 단백질 섭취의 질적·양적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집트의 소 및 버팔로 산업의 주요 생산물은 우유이다. 육류(red meat)는 우유 생산의 부산물로 여겨진다. SADS 2030에서는 육류보다 우유 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 이유는 1980년대 이후 이집트의 인구 증가와 함께 우유 수요가 급증하였다는 데 있다.

정부는 유전공학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소와 버팔로의 체중을 줄여 육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대신 우유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브루셀라(Brucellosis),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리프트계곡열(Rift Valley disease), 소 결핵(bovine tuberculosis)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조기 예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질병에 따른 우유 생산량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금육 또한 증산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수를 34만 8,000마리로 늘리고, 53만 6,000마리를 수입하여 가금육 및 계란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다.

3)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집트는 과거에 농산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과 유럽 시장에 근접한 위치의 혜택을 누렸다. 환경적·지리적 이점 덕분에 농산물은 오랫동안 이집트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집트 농업은 무역 자유화, 지역주의 확산, 농산물 품질 경쟁력 저하 등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1960년대 초까지 농산물 수출은 이집트 총 수출의 85%를 차지하였다. SADS 2030에서는 과거 이집트 수출을 이끌었던 면화, 쌀, 양파, 땅콩, 신선 채소 등의 수출을 지속하는 한편, 방향 식물(aromatic plant), 유기농 제품, 절화(cut flowers), 관상식물 등 새로운 농업 수출상품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의 유기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며 이집트 유기농업이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재배지는 2006년 1만 4,200ha에서 2013년 8만 5,800ha로 급증하였다. 이집트에서 유기농법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감자, 망고, 바나나, 살구, 딸기, 곡물, 면화 등으로 다양하다.

이집트 유기농업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유기농산물 재배지는 여전히 전체 농지의 0.2%에 불과하다. 유기농업이 이집트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원인은 극히 소수 농가만이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제 표준을 숙지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집트 정부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유기농업을 독려하고 있다. 일례로 파이옴유기농발전협회(Fayoum Agro-Organic Development Association)는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가 인증 획득, 유기농업 기술 전수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집트 나일강 일대는 비옥하여 예로부터 비료 없이도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해왔다. 비옥한 농토에 유기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해져 유기농 산업은 이집트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4) 식량 자급률 제고

이집트는 식량 위기와 식량가격 폭등에 대비하여 식량안보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집트 인구는 2016년 약 9,116만 명에서 2030년 1억 6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식량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정부는 주요 식품의 안보 수준을 우선적으로

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SADS 2030을 통해 목표로 하는 품목별 식량자급률은 <표 3>과 같다.

이집트 정부는 식량안보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식품소비 패턴 변화와 영양상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집트 국민의 식품소비는 고열량 탄수화물 식품에 집중되어있다. 인구의 45%가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비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유, 계란, 생선, 백색 육류 등 근력 강화식품과 함께 채소 과일의 국내 생산을 독려할 계획이다. SADS 2030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 1인당 적색육류 소비량을 18% 줄이고, 백색육류 소비량을 18% 늘릴 전망이다. 우유와 계란, 생선의 1인당 섭취량도 각각 27%, 13%, 13% 증가시켜 국민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극복할 계획이다.

<표 3> 주요 식품의 식량자급 목표치

단위: 천 톤, %

주요 식품	2007년			2017년 목표치			2030년 목표치		
	생산량	수요량	자급률	생산량	수요량	자급률	생산량	수요량	자급률
밀	7,388	13,591	54.4	12,000	16,238	73.9	15,120	18,709	80.8
쌀	4,553	3,273	139.1	4,161	3,956	105.2	4,809	4,664	103.1
옥수수	6,300	11,900	53.2	12,600	16,100	78.3	18,500	20,600	91.9
설탕	1,487	1,933	76.9	2,260	2,760	81.9	3,460	3,710	93.3
감두	301	578	52.1	480	690	69.6	720	795	90.6
감자	2,793	1,548	180.4	3,600	2,024	177.9	4,900	2,650	184.9
토마토	7,888	7,623	103.5	11,600	9,200	126.1	18,600	10,812	172.0
오렌지류	3,594	2,672	134.5	5,400	3,496	154.5	7,500	4,240	176.9
포도	1,783	1,294	128.5	2,400	1,656	144.9	3,500	2,120	165.1
우유	4,400	4,859	90.6	7,200	7,332	98.2	9,540	9,540	100
적색 육류	670	1,001	66.9	853	1,104	77.3	1,089	1,166	93.4
백색 육류	850	847	100.4	1,095	1,095	100	1,410	1,410	100
계란	240	240	100	288	288	100	373	373	100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5. 농식품 유통 관련 제도

다음으로 각 농식품들의 유통 구조와 식량 보조 정책의 관계를 알아본다. 먼저 소맥의 유통제도와 식량보조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5.1. 소맥 유통제도와 식량 보조제도³²⁾

생산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1976년에 공출을 의무에서 임의로 하는 등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맥분(밀가루)·빵 가격은 보조금에 의해 저렴하게 억제되고 있었고, 또 현 지역을 초월한 소맥 유통이 규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 큰 변화는 없었다. 이에 1990년대에 피노와 샤미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개혁이 실시되었다.

소맥 유통과정의 실질적인 변화는 피노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가능해졌다. 피노가 시장가격으로 판매되면서 민간업체의 전국적 유통과정 진입여지가 넓어졌다. 또한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정책(ERSAP) 하의 경제 자유화 정책에 따라 피노 밀(소맥) 유통이 민간업자에게 개방되었다. 그 결과, 2001년 시점에서 피노 제분의 약 60%는 민간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소맥 유통시장은 조달제도·방법 규제에 의해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즉, 자가소비를 포함한 농촌 내에서의 소규모 자주유통, 식량보조제도에 따른 정부기관 중심의 바라디용 유통, 1992년 이후에 가능해진 피노용 유통이다. 현재의 소맥 유통시장 분화는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개혁 전의 유통제도에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5.2. 식품유통제도(푸드밸류체인³³⁾의 상황)

이집트의 콜드체인 시스템은 대규모 민간기업 주도로 계속 정비되고 있다. 수입항에서 소비지까지 일관하여 정온관리(定溫管理)가 가능한 기업은 있지만, 체인

32) 土屋一樹, '変革期を迎えたエジプトの小麦流通-小麦流通構造と食料補助制度の変遷-', 「現代の中東」 No.36, アジア経済研究所, 2004년

33) 이 부분은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会社, 平成29年度(2017년도) 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アフリカ) 最終報告書, (일본)농림수산성, 2018년 3월 22일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https://www.maff.go.jp/j/kokusai/kokkyo/food_value_chain/attach/pdf/haifu_chousa29-8.pdf)

전체를 통해 정온관리에 관한 지식·노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근대적인 슈퍼마켓에는 냉장·냉동식품 진열장이 있으며, 정온창고도 정비되어 있다. 하지만, 소매업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전통적인 소매시장에서는 콜드체인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이다.

정부로부터의 지원책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설비기자재의 대부분은 유럽제이다. 최근에는 절전의식이 제고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의 전력가격이 세계적으로 싼 편인 것들을 들여와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에 곤란을 겪고 있다.

판매·소매시장에서는 국내생산 인스턴트 누들은 압도적인 존재이지만, 최근에는 이미지가 다소 악화되었다. 일본기업 인도미는 이집트 기업과 합병회사 SAWATA를 2007년에 설립하여 2009년부터 현지생산을 개시하였다. 1일 생산량은 약 120만 개, 국내소비량은 연간 약 2.1억 개(2016年)로, 4년 전에 비해 소비량이 40% 증가하였다.

기타 가공식품³⁴⁾ 및 소매시장의 경우, 시장은 인구확대에 따라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 경향인데, 주요 식품시장은 주스나 유제품, 식육분야 등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대부분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표 4〉 가공식품 유통 및 판매시장 경향

	유통	판매
마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스, 유제품, 식육 분야 - 대기업은 증산하는 추세 ■ 대기업 자체 저온 유통망(수송, 가공, 보관) 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 하락으로 수입식품 가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량 대중 대상 상품 중에서는 가격이 최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때문에 국산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 소량, 작은 사이즈 선호(샌드위치용 등)

자료: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會社, 平成29年度 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アフリカ) 最終報告書, (일본)농림수산성, 2018년 3월 22일에서 요약·발췌

34) 이집트 가공식품 시장에 대한 내용은 본 지 허 덕 외, '이집트 축산과 축산식품 시장 동향', 「해외국물시장동향」 2020년 8월호(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수요량의 경우,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가격을 최우선적으로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산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서플라이 체인은 전문 수입업자, 전문 도매업자가 많으며, 복수 품목을 취급하는 업자는 그 수가 적다.

수입가공식품에 따라서는 GOEIC 등록이 필요하다. 대규모 슈퍼마켓의 유통구조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카르푸나 메트로의 경우 직접 수입을 하지만, BIM의 경우 유통업자로부터 조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슈퍼마켓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은 주로 Gourmet Egypt에서, 중소득층은 Carrefour나 Metro, Seoudi 등에서 대중들은 주로 BIM이나 Kasyon 등에서 구입한다.

5.3. 이집트의 외식시장³⁵⁾

이집트의 외식시장은 확대추세에 있으며, 값이 싼 시리아 요리가 특히 늘어나고 있다. 중동요리 식당은 1,565개소 정도로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아시아계 식당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인기가 높은 편이어서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5.4. 식품 유통 관련 기관과 규제³⁶⁾

식품 감독기관은 분야별로 다르다. 사료는 식품·사료지방연구소(RLFF), 축산은 축산공단(GOVS), 식물은 식물검역중앙관리국(CAPQ), 수산물은 수산자원개발총국(GAFRD)이 담당하고 있다.

35) 이 부분은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會社, 平成29年度(2017년도) 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アフリカ) 最終報告書, (일본)농림수산성, 2018년 3월 22일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https://www.maff.go.jp/j/kokusai/kokkyo/food_value_chain/attach/pdf/haifu_chousa29-8.pdf) 이집트의 외식시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외, '이집트 축산과 축산식품 동향', 『해외곡물 시장동향』 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36) 이집트의 식품유통 관련 규제와 축산물 및 축산식품 규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외, '이집트 축산과 축산식품 동향', 『해외곡물 시장동향』 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이집트의 농산물 시장 개방 정책

6.1. 무역협정 체결 현황

1995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이집트 정부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대륙 가까이에 위치하며, 대서양과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이집트 내수 시장과 우회 수출을 겨냥하여 이집트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이집트간 농수산물 교역을 자유화하는 협정 협상(FTA)을 타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U는 2005년 11월 28일 채택된 Rabart 로드맵(2010년까지 EU와 지중해 연안국가들 간에 최대한 폭넓은 농수산물 무역자유화를 이룬다는 목표)의 일환으로 2007년 2월 이집트와 농수산물 무역자유화 협상을 개시하였다.

2005-2007년 기간 중 EU는 이집트에 연간 6억 유로(7,920억 원³⁷⁾) 상당의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5억 4천만 유로(7,128억 원)를 수입하였다. 1년 반의 협상을 거쳐 양측은 농수산물 교역자유화 협정에 합의하였으며, 양측은 국내 내부 절차를 거쳐 협정을 발효하게 되었다.³⁸⁾

협상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이집트는 EU측에 민감품목을 제외한 약 9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의 시장 접근을 즉시 허용하였다. 담배, 포도주, 증류주, 돼지고기는 이전의 양자 간 시장개방수준 이상의 양허를 하지 않았다. 품목분류 1704(과자류), 1806(초코렛), 1902(파스타), 1905(과자용 가루반죽)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감축한다.
- 2) EU측도 이집트에 민감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즉시 관세 철폐하였다. 토마토, 오이, 포도, 마늘, 딸기, 쌀, 설탕, 참치 가공제품, 설탕 가공제품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 또는 현행 진입가격제도(entry price system)를 유지한다.

37) 이해를 돕기 위해 유로화/원 환율은 1,320원/1유로를 적용하였다.

38)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EU-이집트 농수산물 무역자유화 협상타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해외농업동향 2008년 7월 4일자 기사에서 재인용하였다. (<https://www.krei.re.kr/wldagr/selectBbsNttView.do?key=162&bbsNo=66&nttNo=43761>)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이집트가 맺은 양자 협정은 총 4개이다. EU, 터키, 유럽 자유무역연합(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남미공동시장(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이 그 대상이다.

이집트는 EU와 맺은 FTA에서 일부 농산품에 대해 쿼터를 해제하고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기로 하였다. 남미공동시장과는 옥류, 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우유 등 가공 농축산품에 대한 관세는 4년 이내로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집트는 동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다자간 무역협정도 체결하였다. 특히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등과 체결한 Agadir협정³⁹⁾은 농산품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철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집트의 경제 재건정책은 투자유치와 수출 확대를 지향하고 있어 향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2.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이집트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또한 2011년 민주화 혁명의 여파로 크게 위축되었다. 2010년 약 68억 달러(7조 4,800억 원)였던 순 FDI는 2011년 약 22억 달러(2조 4,200억 원)로 급감하였다. 하지만 2013년 경제 재건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알시시 정권이 들어서며 이집트 순 FDI가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현재는 100% 외국인자본에 의한 기업설립 보장과 투자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촉진법을 개정하고, 정부차원의 투자포럼을 개최하는 등 FDI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2015/16년 회계연도 기준 대 이집트 FDI 총 유입액은 약 124억 3,400만 달러(13조 6,774억 원)이며, 이 가운데 약 63.5%가 EU 국가로부터, 6.5%는 미국으로부터, 18%는 아랍 국가로부터, 12%는 기타 국가로부터 유입되었다.

대 이집트 FDI는 이집트를 식민 지배하였던 영국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대 이집트 FDI 총 유입액의 약 48%를 담당하며, 석유, 천연가스, 태양력 발전 등 에너지부와 금융, 제약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5/16년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대 이집트 투자 총액은 약 2,240만

39)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간의 협정으로, 2004년 2월 25일 체결하여 2007년 3월 27일 발효되었다.(출처: kotra 국가정보 - 이집트)

달러(246억 4,000만 원)로 알시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는 자원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표 5〉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9/10년	2010/11년	2011/12년	2012/13년	2013/14년	2014/15년	2015/16년
순 FDI	6,758	2,189	3,982	3,753	4,178	6,380	6,838
유입액	11,008	9,574	11,768	10,274	10,856	12,546	12,434
미국	1,425	1,791	578	2,183	2,230	2,116	807
영국	4,926	4,307	5,820	3,997	5,079	4,990	5,944
벨기에	930	777	2,089	720	617	664	678
UAE	304	411	560	481	401	1,383	1,329
사우디	323	206	240	461	284	649	313
프랑스	286	227	316	266	347	230	249
스위스	111	159	125	115	95	165	128
그리스	65	41	56	18	46	5	2
네덜란드	129	146	409	164	192	182	246
대한민국	0	4	5	24	47	164	224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http://www.cbe.org.eg>).

인구 증가 및 1인당 GDP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집트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대 이집트 FDI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3. 소맥 무역 관련 현황

2015년에는 이집트 통상부가 지난 9개월(2015년)과 2016년 5월까지 소맥 수입을 위하여, 이에 관련한 수분 규정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집트 국영 곡물 바이어인 GASC는 1년 전 13% 수준으로 제한하던 초기 규정이 지난 2015년 8월에 만료가 됨에 따라, 보다 수분함량이 높은 소맥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세계 최대 소맥 수입국인 이집트는 소맥 수분함량이 기존 13%에서 13.5% 수준까지 완화하여 소맥 수입이 가능하다고 Mounir Fakhry Abdelnour는 MENA통신

을 통해 전하였다⁴⁰⁾.

프랑스는 이집트의 최대 소맥 수출국 중 하나였으나, 엄격한 소맥 관련 수분 규정 등으로 인해 수출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다소 완화된 규정으로 보다는 높은 수분함량의 소맥을 생산하여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규정 완화에도 불구하고 GASC는 2015년 8월 중순 이후 수정된 규정들을 알렸으며, 현재까지 수출국으로부터 수분 13% 수준의 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집트는 연간 1천만 톤 이상의 소맥을 GASC와 일반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면서, 세계 소맥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불합리한 상황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식품 안전관리 제도⁴¹⁾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 식품 검사 및 인정 프로세스는 무역산업성(MTI)의 수출입 관리공단(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s and Imports Control: GOEIC)에서 일괄하여 수행한다. GOEIC는 수입식품의 검사와 시험을 실시할 법적 권한을 가진 농업·토지개혁성(MALR) 및 보건성(MOH)과 긴밀히 제휴하고 있다. 보건성은 항만에서 GOEIC와 함께 수입식품 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식품 샘플을 수집하여 중앙공중위생연구소에서 화학, 독물, 미생물 분석을 실시한다.

농업·토지개혁성의 식품·사료 지방연구소(RLFF)가 수입 및 국내산 사료·사료 원재료에 대한 감시를 책임진다. MALR의 축산공단(General Organization for Veterinary Services: GOVS)은 외래병과 전염병, 수의약의 잔류물, 가축과 인간의 오염방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GOVS는 동물이나 축산물 수입에 관한 규제를 기초해 적용한다.

MALR의 식물검역 중앙관리국(Central Administration of Plant Quarantine: CAPQ)이 식물위생 보호의 주요기관으로 식물 및 식물제품의 수입에 관한 규제를

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집트 밀 수입 증대 위한 관련 규정 조정 움직임', 「세계농업」 해외농업동향 2015년 9월 14일자 기사에서 재인용하였다.(http://www.krei.re.kr:18181/new/board/briefing/view/wr_id/2525/page/68)

41) 이집트의 식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외, '이집트 축산과 축산식품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기초하여 적용한다. 이들 기관은 이집트 재무부 관세국(Egyptian Customs Authority: ECA) 및 수출입관리공단(GOIEC)과 연계하여야 한다.

수입품 검사의 경우, 검사 서비스 제공자는 GOEIC 본부 또는 이집트 전역(해운, 항공, 육상 등) 관련 지부이며, 서비스 본거지는 GOEIC 본부 또는 이집트 전 항구의 관련 지부이다. 통일위원회는 위생 및 농작물 수입품에 대해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코딩위원회에 의한 샘플 밀봉과 코드 할당 및 별도 검사실로 코드 장착 샘플을 인도한다.

이집트 표준화·품질관리기구(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Quality: EOS)는 지역시장의 기준을 확립하고 규칙을 제정할 책임을 진다. 컴플라이언스(준수)의 검증은 EOS 이외의 정부기관이 실시한다. GOEIC는 수입품의 7개 검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술규칙이나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기타 기관에는 MOH나 MALR 등을 포함한다.

MOH의 중앙공중위생연구소(Central Public Health Lab)는 필요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이나 착색료의 화학 및 물리조성의 검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MALR의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 분석 참고검사실(Reference Laboratory for Safety Analysis of Food of Animal Origin)은 농산물이 관련 기준으로 지정된 품질 속성을 충족하는지 감시할 책임을 진다.

상품이 영양표시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중금속, 잔류농약, 미생물오염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샘플을 제출, 분석한다. 라벨을 심사하고 표시를 확인한다. 검사결과는 NNI-TRC(National Nutrition Institute-TRC)로 보내져 심사를 받는다.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일반상품 항목에 부과되는 표준세율은 10%로 한다. 고기를 원료로 저장, 가공, 조리한 조리품 및 조제품은 면제된다.

8. 맺음말

이집트의 농업정책은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기초가 크게 달라져 왔다.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이집트는 과거 사회주의 특유의 농업정책을 전개하였다. 또한, 군부 쿠데타 등에 의한 수 차례의 독재 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관련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되어 오다가, IMF 개입 이후 자유화로 인한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수요측면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소맥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총 소비량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5년, 이집트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농업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성과를 토대로 SADS 2030을 수립하였다. 현재는 이 계획에 의거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글로벌 경쟁력 제고, 물 문제, 생산성 향상, 식량 자급률 제고, 식품 안전성 관리, 기술개발 등 등 이집트 농업이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아직도 농업발전이 더딘 편이다.

이집트는 풍부한 인적자원, 작물재배에 적합한 환경, 유럽과 걸프 국가 등 거대 시장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농업발전 잠재력이 크다. 아울러, 정부가 농업 중심으로 경제를 재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농업부문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농업 생산성과 인프라 발전이 주춤하였지만 알시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시시 정부는 농지 개간, 관개시설 및 수송 인프라 건설, 농산물 품질제고 연구, 농업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농업정책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농업부문의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집트 정부가 농업을 이집트 경제 발전의 뿌리산업으로 여기고 단계적 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농업 생산물의 양적 확대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 농업 진흥정책에서 나아가 프리미엄 면화 등 이집트 농업의 장점을 부각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과거에 누렸던 대표 농업국가로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곡물 수급의 관점에서, 이집트가 이러한 농업정책들이 성공한다면, 곡물의 수입량이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적어도 소맥에 관한 한 당분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입 국가일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고 이집트의 주식이 소맥으로 만든 빵이기 때문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맥의 국내 자급율을 크게 올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앞으로 우리는 이집트의 곡물 관련 정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 박성진·김승애,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세계농업」 제19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12
- 허 덕 외, '이집트의 곡물 수급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 허 덕 외, '이집트 축산과 축산식품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집트 밀 농가 보조금 제도 변경', 「세계농업」 해외농업동향, 2015년 11월 11일자 게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집트 밀 수입 증대 위한 관련 규정 조정 움직임', 「세계농업」 해외농업동향 2015년 9월 14일자 게시
- 한국 주유립연합대표부, 'EU-이집트 농수산물 무역자유화 협상타결' 2008년 7월 4일 게시
- 堀江正人, エジプト経済の現状と今後の展望 ~経済の復調が注目される中東北アフリカの大国エジプト~, MUFU, 2019/01/08
- 土屋一樹, エジプトの農業開発政策と農業生産の推移,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아시아 경제연구소, 現代の中東 34권, 2003.1
- 土屋一樹, '変革期を迎えたエジプトの小麦流通-小麦流通構造と食料補助制度の変遷-', 「現代の中東」 №36, 아시아 경제연구소, 2004년
- 土屋一樹, '이집트에 있어서 군의 경제활동', 「中東리뷰」, Vol. 2, 2016
- 草野拓司, '第5章 カントリーレポート: アフリカ', (일본)농림수산성, 2015 와 草野拓司, '아프리카: 주요 지역의主食と政策', (일본)농림수산성, 2016
-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貿易投資相談課 カイロ事務所, 'エジプト食品輸入規則', 2016년 3월 게시
-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會社, 平成29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아프리카) 最終報告書, 2018년 3월 22일 게시
- Adams, Dale W. and Ali Kamel(1996), "Financial Reforms and Rural Credit : The PBDAC's Evolving Role," Lehman B. Fletcher ed., Egypt's Agriculture in a Reform Era, Iowa :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Ahmed, Akhter U., Howarth E. Bouis, Tamar Gutner and Hans Lofgren(2001), "The Egyptian Food Subsidy System : Structure, Performance, and Options for Reform," Research Report 119, Washington, D. C.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會社, 平成29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
委託事業(アフリカ) 最終報告書, 2018年3月22日字 게재
- Sadowski, Yahya M [. 1991] Political Vegetables?: Businessman and Bureaucrat in the
Development of Egyptian Agriculture,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참고사이트

- 나무위키(<https://namu.wiki/w/>)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https://terms.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인명사전, 인명사전편찬위원회(<https://terms.naver.com/>)
- 네이버 블로그 의선(<https://blog.naver.com/choiuisun/67226997>)
- 네이버블로그 꼬꼬몽의 내용수집, '이집트의 주요 산업인 농업은', 2012년 6월 6일자 게시
(<https://blog.naver.com/yogishax/30139867258>)
- 네이버 블로그 젠키즈(<https://blog.naver.com/genkids/220300787195>)
-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 이집트 중앙은행(<http://www.cbe.org.eg>).
-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
- OECD 데이터 (<https://data.oecd.org>)
- USDA (<http://www.usda.gov>)